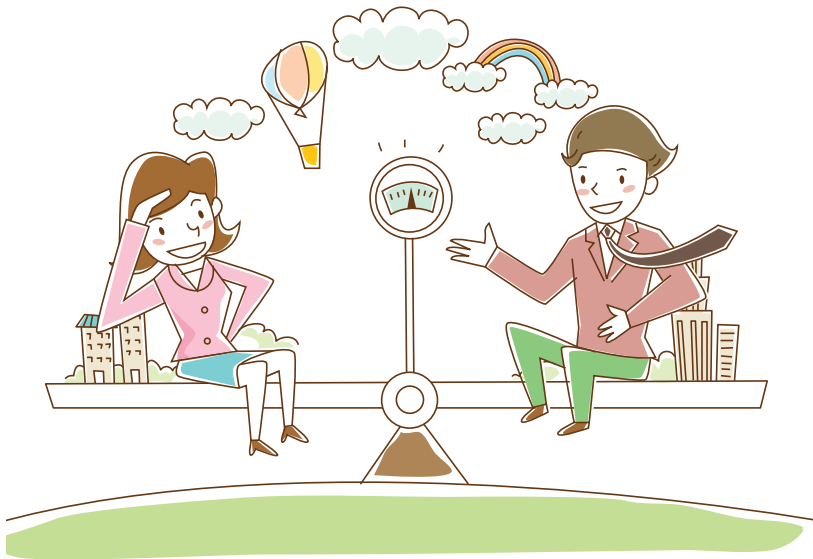


남성 소외감을 관리하는 남녀평등 정책을 지향할 때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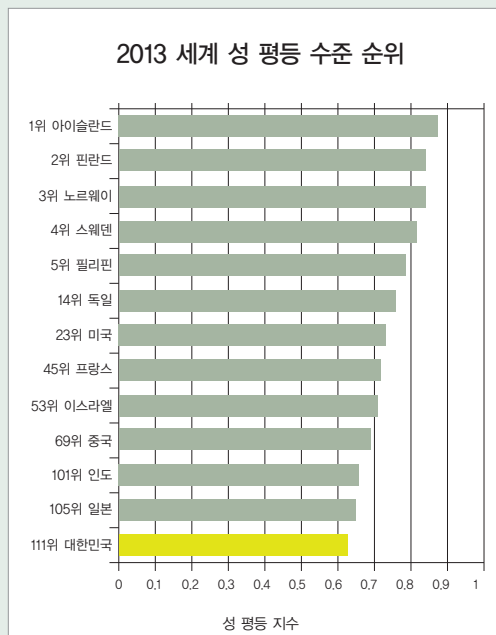


솔직히 말해 요즘 한국 여성들은 꽤 살만해졌다. 지난 20여 년간 유사 이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시기는 아마 없었을 거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

던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은 ‘마초’가 지배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쓰였다. 성희롱은 대놓고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그걸 사회생활의 고충 중 하나로 받

아들일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불과 20년 만에 천지가 개벽하게 달라졌다. ‘여자가...’ 어떡쿵 하는 말은 입에 올리는 순간 탄핵을 당하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여성을 어쩌다 한 송이 핀 꽃처럼 취급하던 직장들에도 여성들이 물밀 듯 밀고 들어가 여성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변화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 ‘여성의 시대’가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한데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1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GGI)는 111위였다. 지난해보다도 3계단 하락한, 한마디로 바닥권이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한국 남녀평등 수준은 아랍권이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 앞뒤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 109위), 바레인(112위) 등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온 비유다.

이 보고서는 매년 나오고, 우리나라는 100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올한 다른 때보다도 좀 유별나다싶게 많이 인용되고, 매체마다 우리나라 여성 지위의 후진성을 다루며 각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가하면 여성가족부는 이 보고서를 놓고 조목조목 분석하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냈다. 한데 이 브리핑 내용은 각성 내지는 반성보다는 반박 혹은 해명에 가까웠다. 일부 통계가 2012년 통계였다거나 일부 통계기준이 우리와 달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과 같은 브리핑의 마지막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성 격차지수가 낮

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에 따라 대상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OJT)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정작 여성의 평등 수준은 바닥권이라는 게 정부의 관점에선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 같다. 더욱이 새 정부의 슬로건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었고, 여성 지위향상을 중점관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더니 그로부터 며칠 후엔 강창희 국회의장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특히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

차가 OECD기준 39%대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선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과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 년간 괄목하게 달라졌지만,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뼈뼋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여성 정책은 돈 안 드는 쪽으로 치중하고, 여성에게 돈 되는 경제활동 인식 개선 등엔 별 성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통계는 민망할 정도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였다. OECD평균(61.8%)보다 현저히 낮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인 시대에 20~29세 사이에선 여성 취업률이 높지만 30세 이후부터는 역전된다. 이는 젊은 여성이 비정규직을 채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열악한 취업구조 탓에 여성근로자 임금 수준은 남성의 44% 수준이다. 대졸 이상 여성도 57%에 불과하다. 여성임원, 정치인 등 고위직 진출 비율은 너무 미미해 거론할 것도 못 된다. 어쨌든 정치권은 이런 경제적 격차와 여성 고위직 진출 문

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의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으로 대체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현주소는 WEF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남성사회의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다른 하나는 건초남·초식남으로 불리는 무기력한 남성성으로 표출된다. 지난여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 퍼포먼스 사고로 사망한 것도, 이로부터 사이버 세상에서 불거진 남녀 간의 다툼도 여성혐오증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무기력한 남성의 증가는 사회 활력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노력이 진행될 때 남성의 소외감 관리와 가부장적 의식해체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말하

자면 이젠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이 과거 페미니즘 운동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가정 병립' 만큼 '남녀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언론·교육계 등이 남녀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